

발명은 글로벌 시대를 여는 도전 정신입니다

역사 속의 발명품

멜리타의 '커피여과 필터'

독일의 한 가정주부를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시킨 발명품이 바로 커피여과 필터이다.

독일의 드레스덴에 살고 있던 벤츠 일가는 1908년 어느 날 아침, 하루를 기분 나쁘게 시작하고 있었다. 비가 내렸고, 우유는 너무 뜨거웠으며, 커피는 졸아 마실 수가 없었다. 화가 난 프라우 벤츠는 양철 그릇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압지를 동그랗게 올려 그 압지를 큰 단지 위의 양철 그릇 속에 넣었다. 종이로 감싼 커피 가루에 끓는 물을 부었더니 필터가 모든 찌꺼기들을 걸러내었다.

멜리타는 그가 고안해낸 방법을 보고 아침마다 겪었던 번거로움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커피 필터를 탄생시켰다. 사업은 1908년 멜리타의 집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손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멜리타사는 1백5개국에 상품을 팔고 있다.

루드의 '코카콜라 병'



요즘은 각종 음료수가 다양한 병모양을 통해 선보이고 있지만 수십년이 흐른 지금도 디자인이 돋보이는 코카콜라 병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코카콜라 병은 미국의 한 청년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1923년 미국의 조그만 시골 마을의 유리공장에서 일하던 청년 루드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유리병이 물에 젖었을 때 잘 미

끄러지지 않고, 병에 든 내용물의 양이 많아 보여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에 꼭 맞는 유리병을 만들어내기 위해 만들어서 부수고, 또 만들어서는 부수는 일을 반복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루드에게 애인이 찾아왔다. 그녀는 엉덩이 선이 예쁘게 드러나는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애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루드는 곧 치마 모양을 병에 재현시켰고, 이 발명품을 코카콜라사가 채택하였다.

루드의 이와 같은 성공담은 미국 전지역에 알려져 콜라 병을 질 때마다 모든 이들에게 야망을 불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윌 켈로그의 '콘플레이크'

사계의 어린이들이 영양 간식으로 먹거나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기고 있는 콘플레이크는 실험도중 실패하여 생겨난 발명품이다.

1894년 미국의 윌 켈로그는 요양소의 주방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별다른 재주도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전전공공하던 그가 그나마도 유명한 베틀크리크 요양소에 일자리를 얻은 것은 원장인 형 존 하베이 켈로그 박사 덕분이었다.

그러나 윌은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윌은 환자들에게 줄 새로운 오트밀을 개발하는 중이었는데, 가마솥에 넣은 밀가루 반죽을 꺼내는 것을 잊었다. 다음날 윌은 그 반죽을 그대로 롤러에 집어넣었는데 기계에서 나온 것은 조각조각 부서진 밀가루였다. 그것을 튀겨 환자들에게 내놓았는데, 반응은 예상 외로 좋았다.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들은 윌은 콘플레이크를 발명하게 된 것이다.

발명 아이디어

휴대형 소형 세탁기

이 아이디어는 여행 중 전통 모터와 교반 날개를 포함한 세탁기 본체를 바스켓과 분리하여 바스켓을 휴대하거나, 임의의 바스켓으로 대체시켜 야외에서도 자동차 전원을 포함한 각종 전원을 이용하여 세탁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여행 중에는 세탁기를 휴대할 수 없으므로 꼭 손세탁을 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 아이디어를 통해 야외에서도 물과 세제만 있으면 자동차 전원을 포함한 각종 전원을 이용하여 전통 모터와 교반 날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한 물살을 이용해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다.

사업성

이 아이디어는 국제특허(PCT/KR02/00039) 및 국내 특허(10-2002-0002380), 이중출원 중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 단일출원된 것으로, PCT 조사 결과 타국의 선행기술이 존재하지 않아 그 사업성이 높다.

발 명 가 : 윤장식
출원번호 : 2001000164
등록번호 : 제 238576호

특허 Q&A

Q 화상 디자인의 의장등록 출원 요령은 무엇입니까?

A 화상 디자인의 의장등록 출원은 정보통신기기 등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를 가지는 물품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부분의장의 출원을 중심으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의 취급을 말합니다. 출원서 및 도면 작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면의 작성 요령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당해 도형 등이 통전(通電)등에 의하여 표시되고 있는 상태를 사시도 및 6면도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화상 디자인에 관한 의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컴퓨터 화면의 일부가 실선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기의 형상을 파선으로 묘사하여 화상 디자인의 배경을 나타내고, 그 파선 내에서 실선으로 화상 디자인을 표시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나. 제출하여야 할 도면의 수

화상 디자인에 관한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액정 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정보화 기기이므로 현행의 입체의장의 경우와 같이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시도는 사투상도법·등각투상도법·부등각투상도법·투시도법 중 어느 도법을 사용해도 무방하나, 6면도는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어야 합니다.

즉 화상 디자인에 관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정면의 일부분만을 부분의장으로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선과 파선으로 도시된 사시도 및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시도와 6면도만으로 부분의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도·사용상태도·참고도 등 부가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의장의 설명'란 및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 요령

화상 디자인을 부분의장으로 의장등록 출원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설명'란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장창작내용의 요점'란에서 화상 디자인에 관한 의장 창작의 특징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은, 심사·심판의 신속화나 의장공보에 게재되어 제3자에게 등록의장의 창작에 관한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라.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액정 등 표시부 안에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지 않는 도형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그 도형 등이 부분의장으로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도형 등의 위치, 크기, 범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선(破線) 등에 의해 사시도 및 6면도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을 가지는 경우로서 사시도 및 6면도만으로는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 디자인인지 아니면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통전(非通電)시의 상태도>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페이지 수는?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책 한권 샀는데 2백페이지 분량의 책이었다.

3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이르는 10페이지 분량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오려내고 나니 1백90 페이지가 남게 되었다. 다시 56페이지에서 75페이지까지 20 페이지에 걸쳐 필요한 내용이 더 있어 이것도 오려냈다.

이 책의 남아 있는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인가?

해답은 다음 호에...

[지난 호 문제]

최하 몇 마리의 악어를?

[해답]

한 마리.

1센트짜리 동전을 3백96개 지불하면 거스름돈 없이 한마리만 살 수 있다.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풀이를 기다립니다.

20일까지 여러분들만의 해답을 보내주세요.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여성발명협회' 앞

(02)538-2710/2702

e-mail: kwia@inventor.or.kr